강당 대신 교실…코로나가 바꾼 졸업식

방역당국 지침 따라 학생만 참석…가족 등 축하 사라져

꽃집·식당 등 '졸업 특수' 실종…"코로나 현실 안타까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졸업식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대부분 학교들이 졸업식을 학급별로 간소하게 치르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초·중·고 학교의 졸업식에서는 가족,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졸업 특수가 없어진 탓에 요식업계와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1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전남 일선 대부분 학교의 졸업식이 방역당국의 접촉 최소화 방침에 따라 학생들만 참석해 치러진다.

학교들은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졸업식에 학생 가족과 친척 등 외부인들의 참석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졸업식장도 졸업생들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강당과 운동장이 아닌 교실이 대부분이다.

졸업생들이 가족·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졸업식장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지난 학교생활을 되새기는 정겨운 풍경도 사라지게 됐다.

또 가족과 친척들이 졸업생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며 진학을 축하하는 장면도 쉽게 포착할 수 없게 됐다.

초등학교 졸업생을 둔 학부모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졸업식을 축소해 치르는게 맞지만 아이가 현장에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지 못하게 돼 너무 아쉽다"며 "큰아이 졸업식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온 가족이 다 참석해 축하해줬는데 코로나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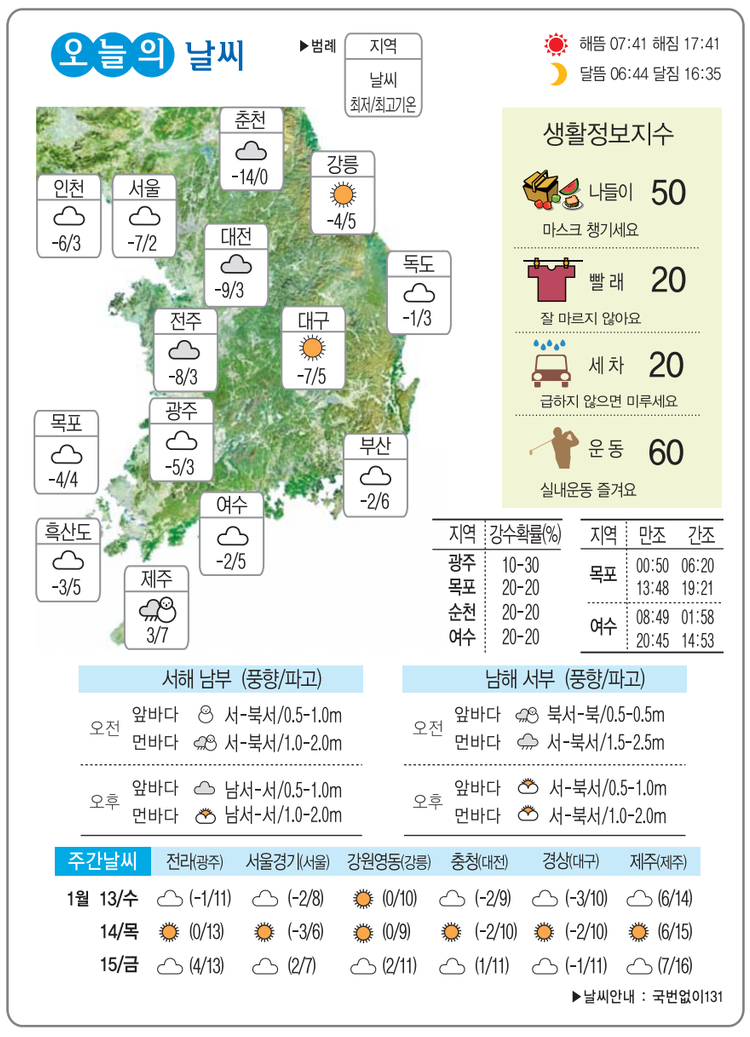
더구나 5인 이상 식사 금지에 따라 졸업식이 끝나면 온 가족이 점심, 저녁 외식을 하는 문화도 자취를 감추게 됐다.

중 3학년 학부모 이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식 날 저녁 집에서 직접 음식을 요리하거나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며 "졸업식 날 가족들과 중국음식점 가서 탕수육에 짜장면을 먹는 추억도 잠시 접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와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침울한 분위기다.

서구 쌍촌동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한모씨는 "졸업식이 있는 1월과 2월이 화훼업계에서는 최대 특수 시기인데 올해는 이미 망쳤다"며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취소돼 꽃을 사가는 이들도 크게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상무지구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작년 이맘때면 졸업식 날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예약전화도 거의 없다"며 "하루빨리 5인 이상 식사 금지 조치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동구, '도심건강길' 7곳 지정

광주 동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산책길 7곳을 '도심건강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13년 도심건강 8길을 도심건강길로 지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주변 여건 및 주민의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 위촉된 '건강도시 활동단'의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산책로를 선정하고 '도심건강 7길'로 다시 명명했다.

'도심건강길'은 총 19㎞로 주민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으로 1길부터 7길까지 지정됐으며 각각의 구간을 50분 정도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주요구간으로 ▲(1길)단사공원↔깃대봉 체육쉼터↔조대부고 ▲(2길)보현사 입구↔동적골 체육쉼터 ▲(3길)조대입구↔계림동 이마트 ▲(4길)선교너릿재 입구↔너릿재 정상 ▲(5길)원지교↔한국아델리움아파트↔증심사 입구 ▲(6길 천변길)용산체육공원↔녹동역↔진아리채 1차 ▲(7길 천변길)광주일고↔학동↔용산체육공원 구간이다. /오승지 기자

비대면 금연클리닉 물품 포장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11일 오전 상담사들이 금연을 결심한 구민들에게 보낼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 등을 포장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남구, 장애인 '점자 구보' 발행 눈길

광주 남구가 올해부터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점자 구보'를 매월 발행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구정 소식을 비롯해 관내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남구청 소식지 '남구 이야기 점자 구보'가 발행된다.

점자 구보는 가로와 세로 190×254㎜ 크기로, 시각 장애인들이 손바닥에 구보를 펼쳐 놓고 읽기 쉬운 크기로 제작된다.

발행 면수는 구보에 담긴 텍스트 문서 분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20면 전후가 될 예정이다.

점자 구보는 앞면에는 점자, 뒷면에는 묵자를 혼용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점자의 경우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작고 둥근 형태의 점을 볼록하게 제작해 시각 장애인들이 손끝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각 장애인 중에 앞이 보이긴 하나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면서 굵게 인쇄가 가능한 묵자가 사용된다. /김동수 기자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립 본격 추진

올해 권역별 5곳 구축…오는 31일까지 장소 공모

광주 남구가 올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립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단지에 1호 돌봄센터 구축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돌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5곳 설립을 위한 설치 장소 공개모집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에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놀이공간을 비롯해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설치 장소 공개모집을 통해 월산·백운권과 사직·양림·방림권, 봉선권, 주월·진월권, 효천지구권 등 권역별로 안배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인구 대비를 통해 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수 기자

북구, 태양광 안심가로등 42개 설치

광주 북구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주관한 '2020년 안심가로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은혜학교 등 4곳에 태양광 안심가로등 4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공헌사업인 안심가로등 사업은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북구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은혜학교, 문화여중, 대야제, 두암주공아파트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농촌마을 진입로,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 일원에 가로등을 설치했다.

기존 가로등 보다 1.5배 밝은 이 태양광가로등은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과 장마철에도 최소 7일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된다. /김동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월출산 아래 사람 냄새가 나는
영암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신북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

영산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 가득한 곳
시종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독천 낙지거리 갈낙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천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문의 : 062)650-2099